

알제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7.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2,382천 km ²	G D P	1,976억 달러(2018 추정)
인구	42.3백만 명(2018 추정)	1인당 GDP	4,669달러(2018 추정)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Algerian Dinar (DZD)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환율(달러당)	115.90(2018 추정)

-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알제리는 한반도 면적의 10.8배에 달하는 국토와 약 4,232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리비아, 말리, 튀니지 등과 접경하고 있음.
- OPEC 회원국이자 가스수출국포럼(GECF) 가입국인 알제리는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아연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프리카의 경제대국임.
- 2014년 부테플리카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하고 2017년 5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였으나 2019년 대선을 앞두고 부테플리카의 건강에 대한 의심과 불투명한 후계구도, 지속된 불경기로 인한 대중의 불만으로 정치·사회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알제리는 자국의 석유·가스 산업에 진출해 있는 미국과 이슬람 극단주의 대처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주요 가스 수입국인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석유·가스 산업 및 테러대응 관련국과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
- 석유산업이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경제상황이 좌우되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석유산업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지속하여 왔으나 최근의 저유가 추세 지속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제성장률	3.8	3.7	3.3	2.0	3.0
재정수지 / GDP	-7.3	-15.3	-13.1	-6.4	-7.9
소비자물가상승률	2.9	4.8	6.4	5.6	7.4

자료: IMF WEO.

□ 에너지 부문에의 의존도가 높은 경제로 저유가 추세에 따른 저성장 지속

- 알제리는 원유·가스 산업이 GDP의 30%, 재정수입의 60%, 총수출의 98%을 차지하는 등 에너지 부문에의 의존도가 높은 경제로, 2013년 말부터 이어진 유가하락으로 인해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고 있음.
- 2014~16년에는 고유가 시기에 축적된 오일머니를 활용한 공공투자로 평균 3.6%의 경제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2017년에는 외환보유액 감소에 따른 공공투자 침체 및 산유국 감산 합의 이행에 따른 원유생산 축소,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0%까지 하락하였음.
- 2018년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지출 확대 및 에너지 국제 가격 일부 회복, 가스 생산 증가 등에 기인하여 3.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향후 성장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 2013년 말 이후 시작된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유수출 수입(收入) 감소, 높은 사회복지 지출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015년 -15.3% 까지 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도 -13.1%를 기록하였음.
- 알제리 당국은 지속적인 저유가에도 불구하고 국부펀드에 축적된 자금을 기반으로 정부지출 축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고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소진되자 2017년에는 인프라 투자 등 정부 지출을 축소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징수를 강화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6.4%로 축소되었음.

* 외환보유고 추이(억 달러): 1,774('14) → 1,426('15) → 1,129('16) → 961('17)

- 그러나 이후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직면하자 2018년에는 중앙은행의 자금공급*을 통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8년의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대비 확대된 -7.9%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17년 10월 재정수지 적자 총당, 공공 장기 프로젝트 재원조달 등의 목적으로 알제리 중앙은행이 5년 간 국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였음.

- 알제리 정부는 긴축재정을 통해 2019년까지 재정수지 적자를 해소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재정지출 확대 후 2019년부터 급격한 재정삭감을 통해 2022년까지 적자를 해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음.

□ 경상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디나르화 약세, 수입규제 등으로 높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지속

- 201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저유가로 인한 원유수출 수입(收入) 감소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및 디나르화 약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등 세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5.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에는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위한 통화 공급 증가 및 수입규제 강화, 경상수지 적자 및 디나르화 약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상승한 7.4% 기록할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석유·가스 산업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

- 정부의 산업다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유·가스 산업이 GDP의 30%, 재정수입의 60%, 총수출의 98%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 등락과 원유 생산량 증감에 따라 경기가 급격히 변동되는 석유의존적 경제구조임.
- 알제리 정부는 석유·가스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자동차 및 백색가전 제품 제조업, 관광업, 건설업 등 수출지향적인 산업 다각화를 장려하고 있으나,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으로 인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8'에 따르면, 알제리의 기업환경 순위(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는 190개국 중 166위에 불과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

- 알제리는 BP(British Petroleum) 자료 기준 2016년 말 122억 배럴의 원유 (세계 점유율 0.7%, 세계 16위, 아프리카 3위)와 4.3조 m³의 천연가스 (세계점유율 2.2%, 세계 11위, 아프리카 2위) 추정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며, 금, 철광석 등 기타 광물자원도 풍부함
- 알제리는 OPEC 회원국이자 가스수출국포럼(Gas Exporting Countries Forum: GECF*)회원국임.
- * GECF는 천연가스 생산국들의 모임으로 OPEC과 유사한 성격의 단체이며, 2008년 러시아의 주도하에 공식 국제기구로 출범하였음. GECF 가입국은 러시아, 이란 등 12개국이며, 이들 국가들은 세계 가스 매장량의 73%,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산업 다각화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5개년 개발계획(2015~19년) 진행

- 알제리 정부는 석유산업에 편중된 경제구조 탈피를 위해 비석유 부문 육성,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진흥 등이 포함된 국가개발 5개년 계획(2010~14년)을 시행하였으며, 동 계획의 추진에 2,86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음.
- 차기 5개년 개발계획(2015~19)이 약 2,620억 달러 예산규모로 진행 중이며, 이중 수자원 부문에 178억 달러, 도로망 확충 부문에 550억 달러를 투입하고, 주택 부문에 이전(630억 달러)보다 많은 64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9년까지 16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임.
 - 주택공급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요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어 정부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임.
 - 수자원 부문에는 약 1만 km² 면적의 경작지 관개망 구축 사업, 해수담수화 플랜트 및 하수처리시설 건설, 12개 댐 건설 등이 포함되며, 5개 댐 연결을 통한 기존 수력발전소 확장과 상수도 건설 사업 등도 진행될 계획임.
- ※ 단, 알제리 정부가 지속된 저유가로 인한 재정 압박으로 인프라 부문 지출을 지속 축소하고 있어 당초 계획(2,620억 달러)보다 적은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임.

□ 유가하락 대응 및 자국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수입 억제 및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실시

- 알제리 정부는 저유가 기조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고 자국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수입액이 큰 자동차, 시멘트 등의 제품에 대한 수입 허가제를 실시하고, 외환관리를 강화(L/C 개설 통제 등)하는 등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 2018년 하반기부터는 임시 수입관세를 신설하여, 완제품 수입에 대하여 60%~200%에 달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함.

-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현지에 건설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지난 몇 년간 금지해 오던 내국인의 신용구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재화·용역에 대한 관세·부가세 면제, 프로젝트 관련 부동산에 대한 10년 면세 등이 반영된 투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처럼 알제리 정부는 투자여건 개선과 수입제한을 병행하면서 현지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의 경우 2014년부터 수입쿼터를 크게 축소해오고 있어 해외 기업들의 현지 공장 건설 및 가동이 증가하고 있음.
 - * 자동차 수입 쿼터 : 35만 대('15) → 8.3만 대('16) → 5만 대('17)
- 2014년 11월 알제리에 첫 'Made in Algeria'인 Renault 자동차가 출시되었으며, 2016년부터 현대 자동차도 수입규제 회피와 현지생산 혜택을 위해 상용차 및 승용차 부문에서 현지 조립공장을 건설해 가동하고 있음. 또한 Volkswagen, Suzuki 등 외국 자동차 회사들의 알제리 현지 공장 설립 발표도 이어지고 있음.

3. 대외거래

< 표 2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e	2018 ^f
경 상 수 지	-9,280	-27,280	-26,220	-21,950	-15,483
경 상 수 지 / G D P	-4.4	-16.5	-16.6	-12.3	-9.3
상 품 수 지	460	-18,080	-20,120	-14,175	-7,446
수 출	60,130	34,570	29,310	34,366	42,587
수 입	59,670	52,650	49,430	48,540	50,033
외 환 보 유 액	177,400	142,600	112,900	96,100	96,100
총 외 채 잔 액	5,521	4,671	5,466	5,766	5,666
총 외 채 잔 액 / G D P	2.6	2.8	3.4	3.4	3.0
D S R	0.4	1.0	1.4	0.5	0.5

자료: IMF, EIU, OECD.

□ 저유가에 따른 상품수지 악화 및 경상수지 적자 지속

- 알제리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수출 수입(收入)에 힘입은 풍부한 상품수지 흑자로 2013년까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기인한 원유수출액 감소로 2014년 이후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7년에는 원유가격 상승 및 가스 수출 증가로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수입규제, 디나르화 약세에 따라 수입액이 감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16.6%) 대비 줄어든 -12.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8년에도 원유가격 상승 및 수입규제 강화에 기인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폭이 -9.3%로 전년대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적자 지속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

- 외환보유액은 꾸준한 오일머니 유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말 기준 1,924억 달러에 달했으나, 2013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저유가 기조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2017년 말 기준 961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음.

□ 총외채잔액 및 D.S.R은 안정적 수준 유지

- 외환보유액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알제리의 총외채 규모는 2006년 파리클럽 외채 조기상환 이후 GDP의 5% 이하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8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3.0%(2017년 3.4%), D.S.R은 0.5%(2017년 0.5%) 등 안정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상황

- 2019년 대선을 앞두고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건강과 불명확한 후계구도 문제로 정치불안 지속 전망
 -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1999년부터 4차례 대통령직을 연임하고 있으나 81세의 고령으로 공개석상에도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아 대통령 직무 수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2019년 4월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나 현 대통령의 건강 문제와 불명확한 후계구도로 인해 다양한 파벌 간의 분열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집권 여당인 민족해방전선(FLN) 및 Ahmed Ouyahia 총리는 최근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5선 출마 지지를 선언하였으나,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인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경기침체로 인한 불만 누적으로 소규모 시위가 지속되나 큰 혼란은 없을 전망
 - 23.9%(2017년 기준)에 달하는 높은 청년(15~24세) 실업률과 제한된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제약, 만연한 부정부패는 알제리 사회·경제의 지속적인 불안요인이며,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정부의 보조금 감축과 공공 부문 임금 동결계획은 대중들의 불만을 가중시켜 2017년 후반부터 소규모 시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
 - 저유가로 인한 정부의 재정 압박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재원은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강력한 치안, 유명 무실한 야당, 1990년대 내전에 대한 기억* 및 시민자유에 대한 제한된 관심을 고려할 때 혁명적인 격변은 없을 것으로 보임
 - * 1991년 총선거를 전후로 알제리 정부와 여러 이슬람주의 반군 집단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져 약 15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됨.

3. 국제 관계

□ 이슬람 극단주의 대응이 외교정책의 주요 관심

- 알제리 정부는 리비아와 말리의 치안을 악화시키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영향력이 알제리로 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테러집단의 자금줄이 될 수 있는 밀수를 통제*하고 말리와 리비아가 있는 남부 국경에 다수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알제리군은 테러집단의 자금줄인 밀수의 억제 없는 테러와의 전쟁은 무의미함을 인지하고 있으며, 2015년 4월 리비아, 말리 국경에서 밀수 용의자 65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

□ 석유·가스 산업과 관련하여 EU·미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

- 알제리의 주요 가스 수입국인 EU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미국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대처를 위해 협력하고 있음. 또한 미국 기업들이 알제리 내 석유·가스 산업에 진출해 있어 공통의 이해관계에 따른 호혜적인 관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조기상환 실시

- 1994~95년 파리클럽에서 약 127억 달러의 채무재조정을 경험하였으나, 2000년대 고유가 기조로 외환사정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적극적인 채무상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2006년 파리클럽 앞 80억 달러 조기상환 등을 통해 외채규모가 GDP의 5%를 밑도는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어, 2017년 말 기준 GDP 대비 3.4%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ECD는 2018년 1월 CRE 평가회의에서 알제리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4등급으로 유지하였음. 알제리는 2005년 이후 3등급을 유지하다 2016년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출액 급감 및 정치적 불안 요소를 이유로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바 있음.

※ S&P, Moody's, Fitch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은 없음.

< 표 3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OECD	4 (2018. 1)	4 (2017. 1)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90. 1. 15 (북한과는 1963년 4. 18 수교)

□ 주요 협정 :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2000), 투자 증진 및 보호 협정(2001), 대외경제협력기금협정(2004), 이중과세방지협약(2006), 해상운송협정(2006), 항공업무협정(2009), 세관협력협정(2016)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8년 3월말 누계 기준 44건, 209,861천 달러

□ 교역규모

< 표 4 > 한·알제리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출	850,174	1,066,249	1,238,250	자동차,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등
수입	864,932	199,970	712,838	원유, 석유제품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알제리는 2013년 말부터 이어진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시기에 확보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한 인프라 투자로 3%대 후반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외환보유고 감소에 따른 공공투자 제한 등에 따라 2017년 경제성장률은 2.0%에 그쳤음. 2018년에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출 확대 및 가스 생산 증가 등에 힘입어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부문에의 의존도가 높은 경제로서 유가하락에 따른 원유 수출, 조세 수입 감소로 대규모 쌍둥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가하락에 대응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수입 억제 및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2019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으로, 4번째 연임 중인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건강과 통치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불투명한 후계구도로 인해 정치불안이 지속될 전망이다.
- 외환보유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2018년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은 3.0%, D.S.R.(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0.5%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조사역 이지은(☎02-6255-5708)

E-mail : jelee@koreaexim.go.kr